

# 經營學과 體制關聯의 認識

## —企業環境要因研究〔I〕—

金 元 銖

《目 次》	
I. 序 言	3. 資本主義의 類型別區分의 例
1. 經營學과 體制關聯의 認識	4. 資本主義主要類型의  특징
2. 經濟體制의 所與性與否	III. 資本主義體制의 本質의 性格에  대한 一理解方向
II. 資本主義體制의 理解	IV. 結 言
1. 資本主義의 概念과 性格	
2. 資本主義의 變質과 理解의 多樣性	

### I. 序 言

#### 1. 經營學과 體制關聯의 認識

協同의 生産實體로서의 企業<sup>(1)</sup>은 企業環境과의 상호의존적 關係의 바탕위에서 성립· 존속· 성장하고 있다. 企業을 둘러싸고 있는 企業環境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는데 巨視環境 중 가장 기초적인 環境要因은 經濟的 環境要因의 하나인 經濟體制이다.

經濟體制<sup>(2,3)</sup>란 巨視的 次元에서 보면 쾨발트(Sombart, W)의 정의처럼 “經濟의 基本적 구성요인인 經濟理念(精神), 秩序(組織) 및 技術의 3要因의 相互關係에 의해 형성되는 경제형태”([46][11] p. 4)이며 微視的 次元에서 보면 경제체제의 “경제행위와 結果에 직접, 간접으로 影響을 미치는 모든 制度, 組織, 法規, 전통, 신념, 태도, 가치, 禁忌 및 그 結果 발생하는 行動패턴(behavior pattern)을 포함하는 것”([39] p. 337)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 경영학연구상으로는 경제체제와 관련되는 소위 體制關聯의 認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經營管理論의 연구상으로는 內部指向의 管理가 중심이 되어 外部環境指向

筆者: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教授

- (1) 이때의 企業은 特殊歷史의 概念이 아닌 實體의 存在論的인 經驗對象으로서의 機能的 構成體이다.
- (2) 社會關係 전반에 影響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는 社會體制일수도 있다.
- (3) 이를 政治體制과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체제가 어떤 文化속에서 경제체제가 運營될 수 있게끔 許容하는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라 한다([cf. [30] p. 37).

的인 인식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cf. [5] pp.2-3).

둘째, 독일경영학의 主流인 經營經濟學상으로는 그것이 私企業의 收益性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私經濟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경제체제는 所與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었기 때문에 고찰이 되지 않았었다. 그 까닭은 사경제학이 그 理論前提내지 背後假定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체제란 國民經濟의 利益과 私經濟의 利益이 일치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에 입각하는 자유교환경제이었으며 그 경제질서<sup>(4)</sup>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內部經營計劃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23] p.67).

그러나 제 1차대전후 自由經濟가 拘束經濟(=統制經濟)로 급속히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기업(=經營<sup>(5)</sup>)의 利潤追求活動이 전체경제적이익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졌었다. 슈말렌바흐(Schmalenbach, E.)는 自由經濟만을 유일한 경제체제로 이론전제화하였고 메레로비츠(Mellerowicz, K.)도 같은 입장에 섰으나 그의 제자인 슈발쯔(Schwarz, H.)와 함께 拘束經濟하에서도 經濟政策을 매개로 하여 自由競爭經濟의 장점을 살리려는 指向性을 가진 「管理된 市場經濟」의 構想을 발표하였고 그의 제자인 요나스(Jonas, H.)는 比較體制論을 발표하여 體制關聯의 認識이 經營經濟學의 영역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51년에 구텐베르크(Gutenberg, E.)는 경제체제를 경영형태와 관련시켜 이를 經營形態 결정의 요인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體制關聯的 認識을 하고 있다(cf. [26] pp.327-344).

- ① 體制無關聯의 事實—生産要素의 체계, 經濟性原理, 財務的 均衡의 원리
- ② 體制關聯의 原理—自律의 원리, 器官의 원리

## 2. 經濟體制的 所與性與否

경영경제학상 인식되는 體制란 일반적으로 경제체제를 뜻하는데 그것은 市場經濟體制와 統制經濟體制 및 中央管理經濟體制등으로 나누어 이해된다. 시장경제체제는 自由企業體制라고도 하는데 흔히 資本主義體制로 이해되며 이의 對極이 되는 中央管理經濟體制는 計劃經濟體制로서 集團主義에 입각하는 社會主義體制로 이해되고 있다. 이 두 체제사이의 통제 경제체제는 混合經濟體制로 불리워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體制는 所與의 것일까?

미국의 아이젠하워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서 그것이 所與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들 삶의 중심적인 사실은 이 세상에 두가지의 거대한 人間과 政府에 관한

(4) 경제체제와 경제질서를 동의어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11] p.3) 양자의 밀접한 관계는 인정하나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ibid] p.5). 본고에서는 경제체제의 하위개념으로 보기로 한다.

(5) 인식대상으로의 경제조직체이다.

理念(philosophies of man and government)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가지의 거대한 이념과 정부(미국과 소련)는 세상사람들의 友誼(friendship)와 忠誠心(loyalty) 및 支持(support)를 얻고자 서로 경합하고 있다”([31] p. 9).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의 거대한 理念이란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며 두 정부는 양체제의 총본산인 미국과 소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로서 이러한 두 가지 體制理念은 바로 新生國家의 경우에는 選擇의 가능성이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cf. [6] p. 52).

왜냐하면 두 가지 理念은 모두 인간의 經濟的 福祉의 증진을 가져오기 위한 社會 내지 經濟運營의 틀(framework)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늘날 이와 같은 두 體制가 收斂되는 경향이 있음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세 가지 體制의 體制原理은 <表 1>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를 더욱 細分化하여 나타낸 經濟體制의 類型과 그 構造의 特性을 보면 <表 2>와 같다.

<表 1> 3가지 經濟體制의 원리

體 制	行 動 準 據	行 動 動 因	所 有 樣 式
資本主義(自由經濟)	自 由	營 利	私 有
資本主義(統制經濟)	指 導	公 益 優 先	私 有 認 定
社會主義(計劃經濟)	命 令	公 益	共 有

<表 2> 經濟體制의 유형과 구조적 특성

	資本主義 市場經濟	社會主義 市場經濟	社會主義 命令經濟	共產主義 封鎖經濟
事 例	미국·홍콩	유고슬라비아	소 련	쿠바·북한
財 產 所 有	私 有	共 有	共 國 有 有	國 共 有 有
調 整 機 構	市 場	市 場	計 劃 及 命 令	計 劃 及 命 令
意 思 決 定 構 造	分 散	分 散	集 中	集 中
動 機 構 造	物 質 的 誘 因	物 質 的 誘 因 道 德 的 誘 因	物 質 的 誘 因 道 德 的 誘 因 強 制	規 範 強 制 物 質 的 誘 因

資料 : [2] p. 60.

## II. 資本主義體制의 理解

### 1. 資本主義의 概念과 性格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흔히 自由企業體制인 자본주의체제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體制일까?

스터디번트(Sturdivant, F.D.)에 의하면 古典의 資本主義의 特質은 다음과 같은 2가지 原則에 입각하고 있다고 한다. ([48][9]) pp. 307-308).

첫째, 인간은 이 세계의 자연의 질서(natural order)를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둘째, 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한정된 것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基本的 要素가 유도된다고 본다.

- ① 私有財産制度
- ② 利潤動機에 입각하는 經濟的 誘因(incentive)
- ③ 自由市場시스템
- ④ 政治的 및 經濟的 自由

資本主義의 性格 내지 本質을 규명하려고 한 여러 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은 서로 엇갈려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學問世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28] p. 45) 될 정도로 자본주의란 모호한 개념이다. 本稿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論旨의 전개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하이에크(Hayek, F.A.)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빌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資本이 지배하는 경제체제”(cf. [27] pp. 57-58)라 하였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본(또는 그 소유자)이 優待되는 사회 내지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主義的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즉 “토지나 원료, 공장 및 기계 등 物을 만들어내는 생산수단은 私有化되고 생산 그 자체는 광범한 社會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制度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계급과의 사이에 기본적인 모순과 대립이 생긴다. 이러한 모순·대립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격화한다. 생산력과 國富가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집적되는데 비해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로 되어간다”([19] p. 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描出되는 소박한 資本家的 社會(capitalistic society)의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다른 유형의 人間인 行爲者(actors)가 想定되기 마련이다. 하나는 利潤을 기대하여 企業(enterprise)<sup>(6)</sup>에 참가하거나 創業을 하며 勞動을 원료나 기계와 마찬가지로의 生産資源으로 다루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자신의 노동을 팔게끔 강제될 수 밖에 없는 자이다.

(6) 資本組織體라는 企業觀에 입각하는 企業概念이다(cf. [1] pp. 99-100).

産業과 雇傭면에서의 이와 같은 階級關係의 존재를 所與의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主義의 모델하에서는 餘他の 制度나 機關(institutions)은 노동자를 이와 같이 다루는 기업가의 권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管理되기 마련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이 유도된다. 이를 위해 한면에서는 노동자가 體制崩壞에 이르게 할 수 있을만한 전반적인 經濟危機狀況을 생기게 할 수 있는 市場力을 가지지 못하게끔 政治力을 행사하게 되며 다른 한면에서는 體制내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기나 모순을 무시 내지 배제할 수 있게끔 規制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物理力(violence)의 사용과 관련되는 군대와 경찰은 비록 그것이 노동자에 대립되는 企業家階層을 위해 危機狀況하에서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노동자계층의 이익추구와는 격리된 것으로 다루어지기 마련이라 한다(cf. [40] pp. 291-292).

그런데 이와 같은 순수 소박한 마르크스主義의 모델은 실제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誇張된 것이라고 렉스(Rex, J.)는 주장하면서 영국의 경우 산업의 중심에는 利潤動機가 있기는 하나 勞使關係는 團體協約에 입각해 있다는 등 여러가지 사실을 들어 이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cf. ditto).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측면으로서 노동자로 하여금 자본가에 從屬되게끔 하는 기존의 私有財産體制(system of property)의 正統性(legitimacy)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지속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cf. ibid., p. 29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본주의의 基本的 特質을 資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財産의 私的所有樣式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자본의 所有階層에게 企業의 支配權을 주고 있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사회의 支配階層(ruling class)은 힘과 영향력의 源頭(origins)을 富의 私的所有와 所有權에 두었던 이유 내지 그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2. 資本主義의 變質과 理解의 多樣性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는 과연 앞서 본 바 古典的인 특질을 가지는 것이며 마르크스主義的인 관점에서의 비판이 부합되는 그런 유형의 것일까?

스타이너(Steiner, G.A.)는 자본주의의 再定義(redefinition)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47] p. 81) 하일브로너(Heilbroner, R.L.)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여러 思想家(philosophers)들이 描出한 것과 같은 유형의 資本主義는 천천히나마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嚮導(guided), 統制, 計劃資本主義—로 바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資本主義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로 되어간다는 것은 아마 다른 종류의 體制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대한 歷史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흐름(trend)임을 看過해서는 안된다는 점"

(〔29〕 pp. 310-311)이라 하고 있다. 이는 곧 앞서 본 바 古典的인 資本主義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體驗하고 있는 資本主義는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일까?

드릭커(Drucker, P.F.)는 “미국인이 「自由企業」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자본주의」와는 아주 異質的인 것이며, 또한 옛날에 식민지이었던 원료생산지역에서의 자본주의와는 더욱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식의 개념을 유럽에 바로 投影하거나 유럽식의 개념을 미국에 투영하려고 하면 혼란을 생기게 할 뿐이다. 실제 미국의 體制를 「자본주의」로 부르는 것은 이 용어가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 생각할때 아주 바보스러운 일”(〔22〕 p. 394)이라 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우리의 體制를 자본주의라 할 때 이를 어떠한 유형의 자본주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當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

1927년에 르네상스(人間性復活)시대의 초기부터 현대까지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분석한 쾰발트(Sombart, W.)는 자본주의의 제 3 단계 즉 최후의 발전단계를 제 1 차세계대전에서 비롯하여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았었는데 그는 이러한 시기에 다음과 같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cf. [45] pp. 195-208). 즉 그에 의하면 “이 기간중에 工業化는 전세계에 확산되고 공업국과 농업국의 격차는 축소하였다. 경제중의 순수한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완전한 자본주의」로 불리는 전단계에서는 不利했었던 집단이 조직화된 자기이익을 정치적으로 증진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더욱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더욱 대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은 감소되고 체계적인 제산에 입각한 경영계획이 증대되었다. 사업가의 생각이나 직관대신에 생산, 판매, 재무등에 관해 면밀한 예산이 수립되고 있다. 대규모의 私企業組織은 資本家企業이라 하기보다는 公共機關처럼 되어가고 있다. 배당율이 고정화되고 이익의 재투자가 계획되고 위험부담기능이 전문화되어 內部留保가 이루어짐에 따라 약착같은 利潤追求는 줄어들었다. 결국 資本主義精神은 일반적으로 退化되고 있다.”

쾰발트 이후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뒤이어 자본주의의 발전을 분석하여 왔었는데 오늘날 「純粹資本主義」가 「混合資本主義」로 발전하였다는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바탕엔 資本主義體制가 갖는 특성의 결함을 배제하려고 하는 私企業과 정부의 행위에 의해 이 체제가 내부로부터 개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마르크스主義者의 그것 이외에 포라니

(7) 그리하여 후일 드릭커는 미국을 年金基金社會主義의 나라로 보고 있다(〔22〕 p. 2).

(Polani, K.)의 社會的 保護의 이론[38] 및 세이델(Seidel, B.)의 私的資本主義抑制의 이론 등[43]이 있다고 한다.

오늘날 서구의 모든 非共產主義國에서 볼 수 있는 혼합경제는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自國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아직 資本主義的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대부분의 資本配分에 대한 결정이 私的企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아주 커졌으므로 그것은 修正된 형태의 자본주의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본주의 앞에 형용사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民衆資本主義(peoples capitalism), 嚮導資本主義, 福祉資本主義 및 統制資本主義 등이다([37] pp. 129-130).

이에서 보듯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資本主義라는 개념은 결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古典의 내지 純粹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저마다 다양하게 概念化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類型의 變型된 자본주의가 있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흔히 살펴 볼 수 있는 資本主義의 주요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資本主義의 類型別 區分의 예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로 그것이 발전되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자본주의형태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먼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른 類型別 區分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좀바트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였었다([46] pp. 7-16).

- ① 初期資本主義~16~18세기의 자본주의의 성립기
- ② 高度資本主義~18세기 후반~19세기의 近代<sup>(8)</sup>資本主義가 전개된 시기
- ③ 後期資本主義~19세기~20세기까지의 資本主義의 變質過程期

둘째, 그런데 보통은 위와 같은 시대적 구분에 대응하여 지배적인 자본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7] p. 16).

- ① 商業資本主義~상업자본이 지배한 重商主義의 시기
- ② 產業資本主義~산업혁명을 계기로 하여 형성된 產業資本이 지배적인 시기
- ③ 獨占資本主義~제벌 또는 金融資本이 지배적인 시기
- ④ 修正資本主義~財政(政府)資本의 비중이 커진 시기

셋째, 마르크스主義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13] p. 122).

- ① 產業資本主義

(8) 近世資本主義라고도 한다([4]. p. 65)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近世, 近代의 구별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 ① 自由競爭段階
- ② 獨占段階~獨占資本主義

② 國家獨占資本主義

네째, 뢰펠홀츠(Löffelholz, J.)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類型化하고 있다([33] p.3 [15] p.136).

① 政治資本主義(politische kapitalismus)~古代

② 經營資本主義(Betriebskapitalismus)~단순한 이윤추구를 하는 영리활동일반과 구별되는 것.

다섯째, 웨버(Weber, M.)는 자본주의는 근세에 나타났지만 古代나 중세에도 존재하였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cf. [51][4] p.61).

- ① 古代資本主義
- ② 中世資本主義
- ③ 近世資本主義

그는 近世資本主義만을 자본주의로 보고 이의 특질을 合法的 利潤을 직업(使命)으로서 組織的·合理的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에서 찾고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각자의 信仰의 內面的 特質에 따른 생활태도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본소유와 경영적 지위의 대부분은 프로테스탄트가 차지하였으며, 카톨릭교도는 이와 같은 지위에 거의 진출하지 않고 있다. 후자는 과거의 手工業者의 지위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 傳統主義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는 工場으로 들어가서 合理主義를 愛好한다”고 설명하고 그 起源을 루터派의 “직업은 사명” 칼빈派의 “世俗內的禁慾”의 신앙내용에서 찾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世俗內的 金욕이 직업에 대한 그리고 또한 財의 획득에 대한 적극적인 합리적인 노력으로 나타났다”(cf. [51] pp.61-62)고 한다.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관과 禁慾의生活態度는 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프로테스탄트는 향락에 반대하여 소비 특히 奢侈의 消費를 적극 반대하였다. 그것과 아울러 金욕은 心理的 作用으로서 利潤의 추구를 정당화할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를 직접 神의 意思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營利와 合理主義를 추구하는 資本主義精神이 탄생하였다고 웨버는 주장한다([4] p.62).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은 자본가층뿐만 아니라 노동자층에도 영향을 주었다. 노동자 즉 대중은 가난할때에만 신에 대하여 순종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직업에 충실하고 약삭빠르지 않은 勞動者像이 찬미되었다. 이것은 저임금 내지 착취를 합리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



고 있다(cf. [4] p. 62).

이상과 같이 웨버는 근세자본주의의 특질을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도출하여 營利의 追求를 倫理性에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合理主義속에서 近世資本主義의 精神을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cf. ibid., pp. 62-63).

이와 같은 世俗內의 禁慾主義의인 信仰內容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성장의 조건이 되는 資本蓄積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여섯째, 리프만(Liefmann, R.)은 자본조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고 있다([7] 註 12).

- ① 實物資本主義
- ② 貨幣資本主義
- ③ 證券資本主義

일곱째,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하는 예도 있다(cf. [12] pp. 236-241).

- ① 古典資本主義~스미드(Smith, A.)의 교리에 충실한 자유주의 체제
- ② 修正資本主義~분배면에서의 補正이나 사회자본의 정비, 경기의 안정화 등의 측면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체제
- ③ 新修正資本主義~경제사회에 비경제적요인(정치, 사회, 자연 등의 요인)을 調和시켜 가는 체제

여덟째, 그라스(Gras, N.S.B.)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크게 類型化하고 있다([25][15] p. 136, [24] p. 320).

- ① 前企業資本主義(pre business<sup>(9)</sup> capitalism)시대
  - ㉠ 採取經濟(collective economy)
  - ㉡ 農牧遊動經濟(cultural nomadic economy)
  - ㉢ 定住村落經濟(settled village economy)
- ② 企業資本主義(business capitalism)시대
  - (가) 私的企業資本主義(private business capitalism)
  - ㉠ 小資本主義(petty capitalism)
  - ㉡ 商業資本主義(mercantile capitalism)

(9) 이를 經營으로 번역하여 經營資本主義로 보기도 한다([15] p. 136). 그러나 이는 Betriebskapitalismus와는 다르다.

㉔ 産業資本主義(industrial capitalism)

㉕ 金融資本主義(financial capitalism)

㉖ 國家資本主義(national capitalism)

(나) 公共企業資本主義(public capitalism)

아홉째, 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① 家産的資本主義(patrimonial capitalism)

② 民衆資本主義(peoples<sup>(10)</sup> capitalism)(〔49〕〔37〕 p. 144, [7] p. 16, [16] p. 63)[17] p. 87)

③ 大衆資本主義(mass capitalism)(〔16〕 p. 63, [7] p. 16)

④ 民主資本主義(democratic capitalism)(〔36〕 p. 30)

#### 4. 主要資本主義類型的 특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資本主義의 諸類型 중 주요한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修正資本主義(modified capitalism)~수정자본주의로 불리워지는 現代資本主義의 특징은 여러가지로 고찰될 수 있으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절한 管理와 정책적 역할이 커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고 이 때문에 이를 管理資本主義(managed capitalism)라고도 한다(〔7〕 p. 21). 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cf. [4] pp. 67-68).

첫째, 私有財産制度에 입각하고는 있으나 國有化 내지 公有化된 기업이 많아지며 私企業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巨大해짐에 따라 고도의 公共性을 띠게 되었다.

둘째, 국민경제는 無計劃的 生産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고전적자본주의에 수반되는 弊害가 부분적으로 시정되게 되었다.

세째, 노동자의 지위가 점차 개선되어 왔다.

네째, 기업가는 점차 社會的 責任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생산조직체인 기업에 있어서의 所有와 經營의 분리가 이루어져 生産樣式과 生産關係에 변화가 생겼다는 특징이 지적되기도 한다(〔4〕 p. 21).

(2) 統制資本主義(controlled capitalism)~통제자본주의란 사유재산이나 자유기업은 존재하나 국가나 기타 여러가지 私的機關에 의해 失業이 방지되고 경제성장이나 안정 및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統制가 이루어지는 體制로서 이의 제도적특징은 다음과 같다(〔44〕 pp. 15-16, [18] pp. 130-131).

첫째,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역할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10) 人民資本主義라고도 하는데 이를 大衆資本主義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7〕 p. 16) mass capitalism과는 다른 의미이다.

둘째, 社會福祉가 증시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주로 학생이나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公的資源이 대규모로 사용된다. 선진자본주의제국에서는 교육이나 年金을 위한 지출이 국민소득상 점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된다.

세째, 시장에서의 폭력은 규제완화된다. 경쟁은 계속되나 그것은 점차 規制되고 統制된다. 기업과 정부간의 協調는 점차 장기화된다. 정부의 계획담당자는 豫測의 확실성을 높이고 장기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동일산업내의 기업이 공동의 방침을 추진하도록 여러 기업에 작용을 한다.

네째, 1人當實質所得이 매년 증대되는 것은 당연시된다. 기술혁신의 가속도적인 진전은 이러한 기대를 먼 장래에까지 현실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능률을 높이고 기술진보에 의해 요청되는 고도의 숙련노동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技能이 필요하게 된다.

다섯째, 장기적인 국가계획이 증대된다. 기술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사용되는 時間的인 視野는 장기화된다. 경제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技能은 어느 정도까지 진보되며 또한 民主主義의 傳統的 概念과 兩立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獨占資本主義(monopoly capitalism)~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失業과 恐慌의 모순을 자아내면서 전개되는 유형의 자본주의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7] p. 20).

대기업은 서로 지나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結合됨으로써 여러가지의 獨占體를 형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大財閥이 발생하여 산업을 지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벌의 산업 지배는 주로 자본 또는 금융에 의해 행해지므로 이를 金融資本主義(financial capitalism, finanzkapitalismus)라고도 한다.

(4) 國家獨占資本主義(state monopolistic capitalism)~財閥과 軍閥이 결합되고 獨占資本이 國家權力과 결합된 자본주의를 말한다([7] p. 20).

(5) 民衆資本主義(peoples capitalism)~1942년 당시 미국상공회의소의 회장이었던 존스톤(Johnston, A)의 저서에서 처음 쓰여진 용어로서 이제는 通用語가 되고 있는데([17] p. 87) 이를 다음에 보는 大衆資本主義와 동의어로 보는 입장에서는 자본을 상인이나 산업인, 독립기업인이나 정부가 지배하지 않고 一般大衆이 지배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 p. 16).

(6) 大衆資本主義(mass capitalism)~大衆資本主義의 樣相은 1950년을 전후하여 뉴욕株式市場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이는 주식시장을 통해 미국의 被雇傭者(노동자)에게 주

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資本家(投資者)化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이었다. 왜냐하면 뉴욕주식시장이 구상한 資本市場은 다른 모든 종류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구매자를 위해 일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간기관의 존재이다. 사실상 자본시장의 소비자인 일반대중 모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저마다 주식을 구매한다는 構想은 너무 소박한 생각이었으나 1950년대엔 그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21] pp. 83-84).

이러한 大衆資本主義構想은 주식을 매매하는 일반대중 즉 수백만명의 인간이 자본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오늘날(1970년대)의 미국의 자본시장은 1,000~1,500개 정도의 企業年金基金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그 의사결정은 경제전문가, 財務分析士 및 投資運用者 등으로 구성되는 수백개의 資產管理팀에 위임되고 있고 더구나 이들 팀은 소수의 대은행이나 대규모보험회사에 집중되고 있다(ibid p. 84).

이와 같이 資本市場에서의 의사결정이 기업가의 수준에서 資產管理者의 수준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인간의 손으로부터 「慎重의 원칙」을 따르는 인간 즉 과거에 대해 투자하는 인간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경우 새롭고 소규모적이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餓死케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비록 國有化하지 않고 생산수단의 社會化에 성공한 미국에서(ibid p. 83) 가장 필요성이 높은 企業家的인 자본의 공급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있다(ibid p. 87)고 함으로써 대중자본주의는 幻影이라고 드러키는 지적하고 있다.

(7) 民主資本主義(democratic capitalism)~노바크(Novak, M.)는 이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포괄적인 시스템(體制)으로 이해하고 있다([36] p. 5).

- ① 政治形態~個人的 자유와 행복추구에 대한 權利를 존중한다.
- ② 文化構造~인류 모두를 위한 自由와 正義의 理念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 ③ 經濟體制~市場機構를 존중한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체제는 市場중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 정치적자유, 文化的自律性, 經濟的效率性이 순환적으로 適合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포괄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體制秩序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民主社會主義와는 政體의 성격상 政治權力에 한계가 있고 經濟行爲者에게 주어지는 自律性의 정도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ditto).

### III. 資本主義體制的 本質의 性格에 對한 一理解方向

이상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의 여러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라는 體制的 的인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에 對比되는 社會主義에 對한 概念과의 差異를 通해 窺知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定義되고 있다([19] p.12).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私有가 폐지되고 토지나 원료, 공장 및 기계는 노동자에게를 비롯한 국민전부의 것이 된다. 자본주의하에서도 부분적으로 國有化는 되지만 그것은 생산수단의 私有라는 자본주의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하여 많은 富가 創出되면 그것은 국민에 公平하게 分配된다.……”

本稿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體制的 優越性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체제의 定義를 전제로 할때 양체제의 根本적인 差異는 바로 生産手段인 자본의 所有體制과 關連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인 資本(그것이 貨幣形態이건 實物形態이건)의 所有가 私的이나 아니면 公的인가의 差異에 따라 양체제의 差異가 인정될 뿐 양자 모두 생산수단으로서의 資本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한 우리는 所有制의 變換에 의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移行이 가능하다고 「短略的으로」 생각하기 쉽다([18] p.176). 이와 같은 논리의 전개에 대응하여 드럭커는 “미국이라는 최대의 공업국에 있어서 생산수단이 社會化되고 있다”([21] p.167)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所有로 定義한다면 미국이야말로 史上 최초의 또한 유일한 參與된 社會主義國이며 이 정의야말로 사회주의의 眞正적 또한 유일한 嚴格한 定義”(ibid, p.2)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양체제는 생산수단인 자본의 所有를 전제로 하되 그 所有樣式을 둘러싸고 對立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體制理念이라 할 수 있으며 양체제의 根本적인 共通性은 바로 둘다 資本主義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체제 모두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즉 자본을 전제로 하는 사회 내지 경제의 運營方式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는 그라스가 제시한 私的企業資本主義의 유형이며 사회주의는 公共企業資本主義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드럭커는 다음에서 보듯이 우리가 社會主義國으로 알고 있는 유고슬라비아를 國家獨占資本主義國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체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資本(capital)이란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본이란 영리목적에 위해 사용되는 재산의 貨幣評價額이다. 경영학상으로는 物財資本과 企業資本의 구별이 있는데 전자는 기업이 영리목적에 위해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화폐평가액이며 후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그 지배하에 둘 수 있는 購買力價値를 뜻한다고 한다([10] p.280). 이에서 보듯이 資本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건 그 本質은 생산수단이며 이는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要求를 충족하여 줄 價値를 창출하는데 쓰이는 財貨形態의 實物資本이거나 貨幣價値形態의 화폐자본인 것이다. (11)

자본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었다. 그것은 투자된—영어표현에 의하면 invest(투자)되어—이자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총금액을 뜻하였었다([42] p.9). 그런데 이와 같은 투자된 총금액이라는 의미로서의 자본은 화폐자본을 뜻하는데 이는 바로 資本의 蓄積으로 불리워지는 잉여가치가 資本으로 轉化된 것으로서([35] p.634) 이는 “수익이 자본으로 轉換(conversion of revenue into capital)” ([34] p.319)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은 바로 노동의 성과로서 창출된 잉여가치가 축적투자되어 변환된 노동의 성과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과정은 바로 잉여가치의 창출과정과 一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35] p.220).

이렇게 본다면 자본이란 과거의 인간노동의 성과의 축적된 형태이므로 通俗的인 표현을 빌리면 “노동이 신성하다면 노동의 성과로서의 잉여가치가 전환된 형태인 자본도 신성할 수 밖에 없다”는 推論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 자본은 화폐액으로 보고 있고 마르크스도 자본의 始源的인 형태가 화폐형태로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35] p.163). 그러나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본은 화폐형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마땅히 實物資本으로서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資本의 本質的形態를 擬制的 價値形態인 화폐가치로만 이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롯데(Lodge, G.C.)는 貨幣經濟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의 意味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32] pp.86-87). 즉 그는 “화폐경제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意味가 북부유럽에서는 이미 13세기에 느껴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트레르치(Troeltsch, E.)가 그것이 미친 영향을 「利得을 위한 利得의 精神」이라 하여 밝혔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50] [32] p.86).

(11) 자본의 형성은 “動産이 주로 鑄造貨幣라는 형태로서 발달하게 된 그날부터 발생하였다.”고 하여 화폐자본을 중심으로 특히 有價證券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관점이 있다([42] pp.8-9). 이러한 관점은 모든 생산수단을 價値一般으로 인식하는 광의의 자본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정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곳에서는 모든 價値가 추상화되고 計量化되어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거기에서는 재산이 流動化되어 여태까지 누군들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에 의해 소박한 生活의 바탕이 되었던 自然에서 유리된 경제적 가치로서의 가능성을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화폐에 입각하는 경제의 운영방식은 가치로부터 人格的 要素를 박탈하고 재산을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交易과 所有에 관한 합리적인 法規를 만들고 사람들의 生活을 自然의 상태로부터 고도화시켜 富의 取得을 先見能力, 知能, 計數能力과 결합시켰었다. 이것이 항상 즉각적인 사용에 제공할 수 있는 물건에만 의존하여 서로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었던 神의 攝理에 대한 관념이나 相互扶助, 聯帶의 정신에 대체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正規的인 抽象的 法規나 추상적 또한 非個人的인 사고방식, 합리주의, 相對主義등이 발전하게 되었다(中略). 나아가 거기에서 不安定하고 변동적인 社會的 差別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자본을 비단 화폐형태만이 아니라 實物資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생산수단으로 이해하고 이와 같은 資本의 소유자에게 資本組織體로서의 기업에 대해 지배권을 주거나 우대를 하는 사회제도인 자본주의의 正統性에 대한 근거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正統性(legitimacy)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양체제 모두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私有나 公有나 하는 所有樣式 내지 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體制하에서 자본은 명확한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는 것만으로 보며 노동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라면 동일한 것이되 자본으로 보지는 않는다” ([41] p. 45)고 슈페터(Schumpeter, J.A.)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형태의 생산수단을 소유계층에 따라 자본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본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정통성을 살펴보려면 자본 나아가 자본의 축적형성과정, 그와 같이 하여 형성된 資本에 대한 私有財產權성립의 정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상 자본의 私有制度가 용인되는 체제를 자본주의라 할때 私有制度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로마시대 이래로 社會理念상 私的所有權은 神聖不可侵視되어 왔다. 왜 그와 같은 社會體制가 형성되어 왔을까? 그것은 資本이 비록 人格과 유리되고 外化된 것이지만 그것이 노동의 產物 내지 成果가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축적·투자된 것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신성한 인간노동의 성과의 物化된 형태가 자본이고 그것을 창출한 노동주체인 인간과 축적된 노동성과인 物的形態사이에 人格的인 聯關이 있다고 할때 그 자본은 당연히 그것을 창출한 자에게 歸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資本의 私的所有 그 자체에 잘못은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資本의 源泉의 蓄積은 신성한 人間의 노동의 성과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된 資本 즉 財産이 所有權이라는 權威를 正當化시켜 주었고 근거지워주는 制度가 마련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 않았겠는가?

이와 같은 當爲性이 있는데도 왜 이러한 體制하에 형성된 資本主義社會는 마르크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었다. 산업혁명이후로 성립된 近代工業社會에서는 舊來의 신분제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利己의인 打算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工場主가 되고 자본가가 된 유력한 市民階級(bourgeoisie)이 점차 支配力을 가지게 되었다. 종래의 封建社會에서는 平民으로서 억압받고 卑賤視되던 시민계급이 대규모공장과 세계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 財力에 의한 정치에의 작용이 강력해지고 근대적인 代議政治를 확립하여 의회정치를 통해 마침내 獨占의이라 할수 있는 강력한 政治的 支配權力을 얻게 되었다([14] p.138). 이러한 새로운 공업사회는 自由競爭社會이므로 많은 良質의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자가 이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더욱 강하고 거대화되어가는 有産階級이 있음과 아울러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에 패퇴하여 재산을 잃고 貧民으로 전락하는 無産階級(proletariat)이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생산된 상품도 구매자가 줄어들므로 판매가 정체되어 과잉생산에 빠지게 되고 불경기가 되어 恐慌이 발생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倒産하는 가운데 대자본은 공황을 견디어내고 도산한 기업을 買收하여 더욱 거대화되어간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더욱 강력해지는 소수의 유산계급과 다른 한편에서는 그 수가 더욱 많아지는 무산계급의 계급대립이 첨예화되고 마침내 전국적인 계급투쟁이 결집되어 혁명이 일어나 유산계급의 지배권은 타도되고 그 생산시설은 몰수되어 社會共有의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생존경쟁이 소멸되고 계급대립이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14] p.140).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비판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初期工業社會의 야만적인 競爭社會의 실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석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ibid, pp.140-141) 이 이론의 역사적 의의는 종래 가난하여 過少惠澤層일 수 밖에 없었던 勞動階級에 격려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ibid, p.141).

사실상 賤民資本主義(pariah capitalism)로 불릴수 있는 19世紀의 내지 古典的인 資本主義의 유형은 勞動力商品觀에서 엿볼 수 있듯이 勞動하는 人間을 生産手段視하는 不平等의 人間觀이 지배하던 시대이었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부루쥬아文明이 지배하는 여러 곳에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지우고 있던 在來의<sup>(12)</sup> 人間關係가 무자비하게 斷切되고 冷酷한 現金計定

(12) 原文에는 前近代의이나 필자가 대체함.



이 이에 대체되어 나타났고 가족관계도 금전관계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당시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던 모든 직업에서 後光이 박탈되고 승려, 시인, 학자, 법률가, 의사, 교사 등에 대한 尊敬의 念은 점차 사라지고 이들은 부루조아지에 奉仕하고 고용되는 지식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으로서의 人間의 品位는 交換價值속에 해소되고 良心이 없는 營利<sup>(13)</sup>의 自由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고 神聖한 것은 모두 汚辱되게 되었다”([14] p.139)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자본주의의 경우 19世紀의 내지 古典的 資本主義모델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企業環境의 前提로서 우리가 實感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유형은 과연 어느 것일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생산역할을 수행하는 社會機關으로서의 企業의 效率性을 극대화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體制類型일까?

#### IV. 結言—企業主權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體制的 基盤인 資本主義가 종래의 경영학상으로는 所與의 理論前提 내지 背後假定으로서 주어져버려 體制關聯的 認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開放시스템의 觀點에 입각할 때 企業環境의 주요요인의 하나로서의 經濟體制 내지 社會體制는 당연한 研究領域으로서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음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종래 자본주의는 소위 마르크스의 咀呪로 비유되듯이 왜 그와 같은 體制가 인류 역사상 불가피하게 성립되지 않을 수 없었던가 하는 그 妥當性 내지 當爲性은 인식됨이 없이 結果論的인 否定的 側面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이의 상대적인 理念的 優越性은 고찰되지 않기 마련이었고 자칫하면 敗北主義的인 觀點에서만 다루어져 오지 않았었나 하는데 대한 反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양체제에 대한 올바른 評價를 위한 一視角을 제시하려는 생각에서 本稿를 試論的으로 企圖하게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資本主義의 本質的 性格이 과연 무엇인가 그 根源에 소급하여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아직도 古色蒼然한 19世紀의 내지 古典的 資本主義의 유형으로 固定觀念化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資本主義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들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에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은 生産

(13) 原文에는 商業이나 필자가 대체함.

手段으로서의 資本을 중심으로 하는 體制理念이며 그것은 勞動의 成果인 수익 내지 잉여가치가 未來의 생산을 위해 投資된 것임을 밝혔고 통속적인 표현이나마 노동이 신성하다면 당연히 勞動成果인 資本 즉 과거의 노동의 성과도 신성할 수밖에 없음을 살피보았다.

나아가 자본주의를 하이에크류로 자본 또는 그 소유자에게 支配權을 부여하거나 혹은 그것을 우대하는 체제로 이해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왜 資本의 所有에 입각한 기업의 지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勞動의 榨取로 비판받게 되었던 것일까? 과거의 노동의 성과로서 얻은 잉여가치를 자본화하여 투자한 자본소유자에게 그것을 자유로이 처분·활용케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보장하는 制度的 裝置로서의 자본주의는 오늘의 노동에서 얻은 성과를 모두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통한 資本의 축적 즉 資本形成에 대한 誘因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촉진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勤儉節約을 통해 미래의 擴大再生産을 위해 노동의 성과를 저축하게끔 유도하는 貯蓄獎勵制度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資本形成誘導制度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財形貯蓄制度를 통해 노동자를 포함한 中産層을 資本所有者化하려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理念的 後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體制로 인식되게끔 하였던 것일까?

그 까닭은 첫째 자본의 형성·축적과정에 不公正性이 介在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설령 公正하게 축적·형성된 자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人格과 유리되고 外化·物化된 형태로서 존재하는 한 자본은 흔히 「人間的 論理」와는 배치되는 「資本의 論理」로 불리는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고전적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파생하였던 것과 같은 否定的 歸結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時點에서 자본의 所有樣式의 차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理念的 差異의 基盤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公私企業接近의 경향”([1] pp.139-140)이 있듯이 所有에 입각하는 企業類型의 구분은 실제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은 어떤 체제하에서든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所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둘 다 모두 資本主義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는 私的, 個人的 資本主義이나 후자는 公的·集團的(社會的)資本主義라 할 수 있다. “19세기의 경제학 특히 마르크스경제학의 정의를 따르면 (우리가 社會主義國으로 알고 있는)<sup>(14)</sup>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체제는 노동자에

(14) ( )는 필자의 삽입분임.

대해 대폭적인 自治權과 책임을 주고 있어서 종업원 또는 종업원대표가 기업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형성이나, 공급 및 배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자본은 국가에 의해 獨占的으로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곧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관리는 하지만 그 지배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생산수단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달리 국가는 그들에 대해 아주 엄격한 자본코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잉여가치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자본가의 수중에 들게 된다([21] p. 4). 이러한 의미에서 유고슬라비아는 國家資本主義體制”(ibid, p. 5)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企業의 主權者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입장에서는 私有權에 입각하여 投資者 즉 資本의 소유자가 主權者로 인식되고 따라서 企業은 資本組織體觀의 입장에서 그 개념이 규정되기 마련이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립되는 共同財產所有制에 입각하는 社會主義企業에서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勞動組織體觀에 입각하여 勞動者 내지 從業員主權이 주장될 수 있다.

그렇다면 企業의 主權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누가 가지는 것이 타당할까?

企業의 主權이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권리라 할 수 있다([8] p. 70).

첫째, 기업에 있어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意思決定의 權利

둘째, 기업의 경제적인 成果의 分配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와 같은 두가지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企業의 主權者인데 主權者가 될 수 있는 조건엔 다음과 같은 2가지가 있다([8] p. 70).

① 그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稀少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本質的인 貢獻이다.

② 그 기업이 수행하는 事業의 盛衰에 의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危險負擔의 크기이다.

기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행되는 기업활동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協同的으로 참가하며 그 참가의 방식도 다양하다. 예컨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그것을 매각하는 株主와 같이 비교적 단기적인 관련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또한 임시직으로서 단기간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다. 수년간 계속하여 근무하겠다는 暗黙的인 전제하에 일하는 여사원도 있고 所有經營者처럼 자신의 私有財產의 상당한 부분을 기업활동에 투입하여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그 사업에 자신의 人生의 태반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하나의 기업에 비교적 장기간 일할 셈으로 자신의 경제생활의 대부분

과 사회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그 기업과 함께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사람들 중 누가 과연 기업의 主權者로서 바람직할까?

앞서 본 바 企業의 主權者의 조건에 합치하는 기업참가자는 크게 나누어 자금제공과 위험부담을 하는 주주와 그 기업에 장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맡기고 있는(commit) 경영자(관리자)와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를 포함하는 종업원의 두 집단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勞使 또는 勞資關係라는 말이 있듯이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株主主權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그 까닭은 서구의 경우 주식회사제도가 생겨 주주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적제도가 생길 무렵의 영국이나 독일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稀少하고 人間資源이 과잉한 시대이었기 때문이다([8] p. 73). 따라서 주식회사화된 기업의 최초의 형태가 영국의 東인도회사나 독일의 銅探鑛·精鍊會社처럼 대량의 자본이 필요한 기업이었으며 또한 자본회수의 위험이 큰 사업이었다. 다시 말하면 資源의 稀少性이라는 本質的貢獻과 위험부담의 양면에서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시대였고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株主主權說이 지배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주주주권의 필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8] p. 73).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주주집단과 종업원집단의 두 집단중 主權者로서 바람직한 집단은 후자중의 核心構成員(core member)<sup>(15)</sup>이라 할 수 있다([8] p. 70).

그 까닭은 자본축적도가 낮았었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는 시대에 있어 기업에 본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희소자원은 人的資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나 이러한 희소자원으로서의 人的資源이 될수는 없다. 그것은 능력이 있고 또한 그 기업에 삶을 바칠 그러한 사람들이다.

사실상 기업이란 사회적으로 企業個性을 형성하면서 존속·성장하여 갈수 있는 본질적인 기반은 그 기업이 가지는 노우하우(know-how)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우하우<sup>(16)</sup>란 광의의 기술로서 목적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모든 능력 내지 자원이 체계화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공장의 기술자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現場의 숙련노동자의 技能이나 販賣루트를 관리하는 판매원이나 기업을 경영·관리하는 경영자나 관리자의 經營手腕(能力)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우하우는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invisible assets)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本質的인 社會的存立의 기반인데 그것은 자본도 아니며 공장설비는 더더구나 아니다.

(15) 또는 實質的主權者 circle이라고도 한다([8] p. 73).

(16) 바야나드는 이를 行動的知識으로 부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진 것은 또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업자원이다.<sup>(17)</sup> 질적수준이 높은 사람만 있다면 자본은 얼마든지 조달될 수 있다. 예컨대 冒險會社(venture business)에 투자하는 冒險資本(venture capital)의 존재는 이를 용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事業機會의 파악과 이를 事業化하기 위한 企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자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人的資源을 구할수 있었던 資源供給의 有限性이 인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였으나 情報化의 진전과 知識集約度가 향상된 오늘날엔 오히려 그와 같은 人的資源의 相對的稀少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株主의 출자는 기업에 대해 本質的인 공헌을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企業이 公開되어(go public) 不在者所有制度(遙有制度)가 일반화된 경우 주주란 安定株主化되기 마련이며 그들의 관심은 配當의 고저에 기울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볼때 비록 그들이 有限責任을 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주가 기업에서 최대의 위험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의 증권시장제도하에서는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쁘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즉 주주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던 기업에서 退出할 수 있는 시장, 더구나 退出시에는 그 기업에 資本參加를 하고 있었던데 대한 代償으로서 주식의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큰 위험을 부담한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에 장기적으로 그 자신의 삶을 맡겨 일하는 사람은 退出도 그다지 쉽지 않으며 退出한다 하더라도 기업에 자신이 쏟아넣어왔던 시간과 에너지의 代償을 받을수 있는 시장도 없다. 주주가 쏟아넣는 것은 자본 즉 돈으로서 그 補償은 주식의 매각대금이 되지만 일하는 사람에겐 그런 것이 없다. 기업이 도산지경에 이르러 退出당하게 되거나 退出하지 않을수 없는 경우 그에게 남는 것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능력외엔 아무 것도 없다. 물론 다른 곳에 일자리를 얻는다는 선택은 가능하나 그가 겨야 할 위험부담은 아주 큰 것이다.

더구나 주주는 자금을 分散投資하는 형식으로 여러 기업에 참가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서 지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危險分散의 수단 없이 일의 본질적인 성격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종업원주권이 왜 주주주권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합리적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17) 이러한 면에서 人間資本(human capital)은 바로 인간의 知的能力이 資本化될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두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cf. [8] p.74).

첫째 利害의 一致~일하는 사람들의 個人的 利害와 기업의 조직체로서의 利害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높은 情報效率~기업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업원주권제도가 도입되면 종래의 株主主權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을까? 주주에게는 원래 利益分配權과 주주총회에서 議決權이 주어져 있었는데 후자는 이익분배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하에서의 경영자의 恣意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株主利益의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sup>(18)</sup> 잘못된 經營管理(mismanagement)에 대한 보증 내지 견제”를 위해 주어진 것인데 법률상의 의결권의 존재는 종업원주권에 대한 牽制裝置로서 필요할 수도 있다. 종업원주권이 衆愚經營<sup>(19)</sup>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經營者獨裁를 막기 위한 制動裝置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cf. [8] pp.77-8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자본 내지 재산의 所有에 입각하는 기업 지배권 내지 기업주권이 制約되고 있으며 이에 대체되는 종업원주권(이에는 經營權이 포함된다)이 주장되고 있다.

종업원주권은 所有權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번햄(Burnham, J.)이 주장하는 바 “대상에의 接近(access)과 成果分配上的 우선적인 대우에 의해 支配權을 가지게 되는 것(cf. [20][3] p.151)”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을 協同的生產시스템(cooperation production system)으로 볼때 기업을 매개로 하는 협동과정의 참가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어느 參加集團을 主權者로 보아야만 할 것인가? 앞서 본 바 株主主權이나 종업원주권을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기업을 하나의 統合的機能體로 파악하지 않고 部分要素의 集合으로 보는 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을 주주주권의 입장에서 자본조직체로 보는 企業觀이나 또는 종업원주권의 입장에서 기업을 노동조직체로 보는 기업관등은 모두 동일한 기업에의 協同過程參加者인 두 집단을 분리시켜 인식하는 것이며 그 바탕에는 人間(集團, 階級, 勞使)對立觀이 그 전제로서 깔려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勞使協同(調)觀을 바탕으로 하는 企業(=經營)共同體(Betriebsgemeinschaft)觀

(18) 필자의 插入분임.

(19) 原文에는 衆愚政治이나 대체함.

이나 企業(=經營)同僚體(Betriebspartnerschaft)觀등은 전자와는 달리 人間(勞使, 集團, 階級) 協調觀이라는 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勞使協同觀도 결국은 전체 협동과정참가자중 勞使의 양집단만을 전제로 인식하는 것이기때문에 자칫하면 양집단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勞使憲着的企業利己主義的인 방향으로 경영을 하기 쉬운 경향이 없지 않다. 이처럼 기업을 특정의 協同過程參加集團의 입장에서만 인식하는 것은 기업의 綜合시스템의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기업주권은 누가 가져야만 할 것인가? 資本主義的企業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가 있다([1] p.136) 138).

하나는 자본주의적인 체제하의 기업이란 그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어서 그것은 언제나 獨寡占資本家の 소유와 支配하에 있고 그 목적은 소유자집단의 이윤추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다른 하나는 동태적·발전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변질·다양화에 따라 기업의 성격도 변화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후자의 관점에 입각하는 企業體制論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체제이전의 기업을 봉건성과 아울러 家族的生活性이나 온정, 인정, 和睦 및 신분 등과 같은 親和性을 바탕으로 하는 家業·生業的인 前近代企業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전근대기업에 소위 자본주의정신으로 불리는 資本主義的合理性이 도입되어 근대화과정을 밝음으로써 近代企業化하게 되는데 이에 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cf. [1] p. 137-138).

① 人的私企業~前期近代企業으로서 여기서는 所有經營者로 불리는 기업가가 스스로 出資를 하고 기업을 지배하게 되므로 이들이 가진 소유자로서의 가치관과 사고가 기업전체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자본가 개인의 목적 즉 出資資本의 增殖保全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 된다.

② 資本的私企業~後期近代企業으로서 개인이나 一族의 출자만으로 자본수요를 충족할수 없어 人的紐帶關係가 없는 複數資本家の 資本協同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복수자본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三權分立의思考에 따른 制度化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의 대표적인 法律的企業形態인 株式會社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근대기업은 株式의 大衆化에 의해 所有의 民主化 내지 平準化가 실현되어 所有와 經營<sup>(20)</sup>의 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現代企業化하게 되는데 이는 企業(=經營)自主體(Betriebsautonomie)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출자자 이익을 대표하는 주주총회의 기

(20) 所有와 勞働(作業), 所有와 管理의 분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단계이다(cf. [1] pp. 426-431).

능이 대폭적으로 弱化되고 出資와 관련이 없는 理事도 포함하는 이사회가 기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① 社會性~기업의 社會的機能인 생산 즉 品質의 품을 량으로 적으로 산 및 급을 하는 것

② 公共性~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회전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③ 公益性~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그 역할이나 기능이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전 이해관계자집단의 이익증대를 도모하는 것.

이와 같은 私企業의 성격변화에 대응하여 公企業도 行政從屬의인 성격을 가져 行政 내지 財政의 지배하에 있던 從屬公企業으로부터 獨立採算制 및 經營의 自主性을 갖추게 됨으로써 역시 經營自主體로서의 獨立公企業 즉 公共企業體化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기업성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볼 때 意思決定權(經營權)과 利益分配參加權에 의해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企業主權은 누구에 歸屬되어야만 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廣의의 利害關係者集團을 나타내는 국민전체에 있을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主權在民이라는 정치적슬로건이 아니라도 社會로부터 生産手段을 受託받은 社會的制度體(social institution)로서의 기업의 주권은 국민<sup>(21)</sup>전체에 있을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産業民主主義의 실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社會民主化의 一環으로서의 經濟民主化 및 企業(所有, 運營, 支配)의 民主化에 副應하는 것이 아닐까?

(本稿는 試論的探索이므로 讀者諸賢의 意見과 批判 및 助言을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1] 拙著, 入門經營學原論, 1987.

[2] 金宗奉, 經濟體制論, 1987.

[3] 拙著, 經營學史, 1985.

[4] 朱宗桓, 經濟學概論, 1984.

[5] 拙稿, “企業環境論研究序說”, 서울大學校經營大學經營研究所, 經營論集, 16卷 1號,

(21) 국민의 개념은 國家的 利害의 대립을 반영할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人類 또는 人間이라는 包括概念이 합리적일수 있다. 따라서 이는 people, mass, human 등으로 代替되어도 무방하다.



1982. 3.

- [6] 丁炳然, 經濟原論, 1980.
- [7] 李滿基, 新稿經濟原論, 1978.
- [8] 伊丹敬之, 人本主義企業, 1987.
- [9] 宮川公男編, 經營學, 1981.
- [10] 占部都美編著, 經營學辭典, 1980.
- [11] 鈴木辰治, 經營と經濟體制, 1977.
- [12] 野田一夫, 菅家茂, 企業と社會, 1976.
- [13] 上林貞次郎 “技術的經濟的變化の進行と經營經濟學の今日的課題 — 方法論的検討を中心として—”, 日本經營學會編, 1970年代の經營學の課題, 經營學論集 42, 1973.
- [14] 山崎正一, 人間の思想の歩み, 1972.
- [15] 栗田眞造, 經營史學, 經營學全書 4, 1971.
- [16] 岸本英八郎, 現代經營管理論, 增補改訂 1970.
- [17] 矢島鈞次, 社會科學の危機, 1970.
- [18] 北澤方邦, 構造主義, 1968.
- [19] 陸井三郎, 社會主義對資本主義, 1958.
- [20] Burnham, J., Managerial Revolution, 1941.
- [21] Drucker, P.F., 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ome to America, 1976(同日譯書)
- [22] Drucker, P.F., The New Society, The Anatomy of the Industrial Order, 1950(同日譯書)
- [23] Glochla, E., Betrieb und Wirtschaftsordnung, 1960.
- [24] Gras, N.S.B., “Why Study Business Histor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Vol. 4, No. 3, 1938.
- [25] Gras, N.S.B., Business and Capitalism, 1939.
- [26] Gutenberg, E.,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Bd 1. Produktion. 2. aufl. 1955.
- [27] Hayek, F.A. von, The Pure Theory of Capital, 1941.
- [28] Hecksher, E., “Mercantilism,” Economic History Review, Vol. 7, 1937.
- [29] Heilbroner, R.L., The Worldly Philosophers, 5th ed., 1980.

- [30] Hellriegel, D & J.W. Slocum, Jr., *Management, A Contingency Approach*, 1974.
- [31] Kousoulas, D.G., *Key to Economic Progress*, 1958.
- [32] Lodge, G.C., *The American New Ideology*, 1975(同日譯書)
- [33] Löffelholz, J., *Geschichte der Betriebswirtschaft und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1935.
- [34] Malthus, T.R.,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1836.
- [35] Marx, K.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odern Library, 1906.
- [36] Novak M.,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將來”, *韓國經濟新聞*, 1983년 9월 3일.
- [37] Petit, T.A., *The Moral Crisis in Management*, 1967(同日譯書)
- [38] Polani, K.,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
- [39] Pryor, F., *Proper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Communist and Capitalist Nations*, 1973.
- [40] Rex, J., “Capitalism and the Ruling Class,” in Castles, F.G., et al., *Decisions, Organizations and Society*, 2nd ed., 1976.
- [41] Schumpeter, J.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1950.
- [42] Sée, H., *Les Origines de la Capitalisme moderne*, 1926(同日譯書)
- [43] Seidel, B., *Industrialismus und Kapitalismus*, 1955.
- [44] Shonfeld, A., “Is Capitalism a success?”, *Encounter*, Vol. 24, No. 6, (June, 1965)
- [45] Sombart, W., “Capitalism,”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s*, Vol. 3, 1930.
- [46] Sombart, W., *Der Moderne Kapitalismus, Neuarbeitete, 2 Aufl.*, 1916.
- [47] Steiner, G.A., *Business and Society*, 1975.
- [48] Sturdivant, F.D., *Business and Society*, 1977.
- [49] *The American Round Table, Peoples' Capitalism*, 1956.
- [50] Troeltsch, E.,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tr. by Wyon, O.) Vol. 1, 1931.
- [51] Weber, M.,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1905.